

‘킹메이커’, 대선 앞두고 신념을 묻다

1971년 대통령 선거전 시대 배경 선거전 과정과 수단 정당성 질문 설경구, 변성현 감독과 다시 합심 이선균 “당위성 상상하면서 연기”



배우 설경구(왼쪽)와 이선균이 ‘뜨거운’ 영화로 돌아온다. 29일 개봉하는 영화 ‘킹메이커’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두 사람이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시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리하는 것이 최고의 지상목표인가. 그때 얻는 성과는 과연 정이가 되는 것인가. 29일 개봉을 앞두고 13일 첫 시사회를 통해 공개된 영화 ‘킹메이커’(제작 씨앗필름)가 던지는 질문이다.

내년 3월 치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영화는 본격 정치선거판으로 관객을 끌고 간다. 현실을 떠올리게 하는 절묘한 시의성에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철승 등 실제 정치인들에게서 가득 가지는 이야기와 1970년대의 시대적 분위기로 가득한 색깔과 세트 등 스타일 리시한 외양 속에 담아낸 사실적인 묘사가 힘이다. 이를 통해 세상살이 또 하나의 방편으로써 목적으로 가는 과정과 수단은 얼마나 정당해야 하며, 이를 거쳐 거머쥐는 목표와 승리는 과연 또 그만큼 정당할 것인가를 묻는다.

무엇보다 영화는 15일 개봉하는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을 시작으로 한 외

화 대작의 연말연시 공세에 맞서 한국영화의 대열을 이끌 선두주자로서 기대를 모은다. 설경구·이선균·조우진·김성오 등 탄탄한 연기 라인업이 기대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이다.

● 대선 정국, 신념과 상상력의 이야기

설경구와 이선균은 1960년대에 정치인과 선거전략가로 만나 1971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이야기를 펼친다. 설경구는 흔탁한 정치판과 선거전에서도 “어떻

게 이기느냐가 아니라 왜 이겨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는 야당 정치인이다. 이선균은 그를 도우며 갖은 편법을 써서라도 승리하고 싶은, 무대 뒤에 숨어야 하는 ‘그림자’ 같은 선거전략가 역을 연기했다.

영화는 특히 이선균이 선거전에서 펼쳐내는 때로는 아비하고, 때로는 절묘한 선거 전술에 초점을 맞춘다. 이선균은 마치 살아 숨 쉬며 관객에게 목격한 메시지를 전하는 캐릭터의 맛을 보게 한다. “상

상력을 더해 연기”한 덕분이다. 1971년 공화당 박정희 후보에 맞서 대선에 나선 김대중 당시 신민당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설경구, 그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영삼 원내총무에게서 모티프를 가져온 유재명 등 “인물보다 정보가 없는 역할”이었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시사회 직후 간담회에서 이선균은 “왜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림자 역할로만 있어야 되는지 당위성을 생각하며 연기했다”고 말했다.

● 감독과 배우, 신뢰의 호흡

영화는 주연 설경구가 2017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에서 함께한 변성현 감독과 다시 손잡은 작품. 두 사람은 ‘불한당원’이라는 팬덤을 빚어낸 만큼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설경구는 이날 간담회에서 “처음 시나리오에는 배역이 실존인물 이름으로 표기돼 있었다”면서 “감독에게 요청해 이름을 바꿔줬다. 변 감독에 대한 믿음이 커 출연했다. 전작의 좋은 추억이 ‘킹메이커’에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변 감독은 “가장 자신 있고 흡족한 부분이 연기이다”고 화답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박소담, 갑상선 유두암 수술 성공적으로 마쳐



박소담

배우 박소담이 갑상선 유두암 수술을 받았다. 13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박소담이 최근 정기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고 의료진 소견에 따라 수술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건강할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소담은 1월12일 새 영화 ‘특송’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관련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소속사는 박소담이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응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여정·이선희·이승기, 초록뱀미디어 주주돼



윤여정

배우 윤여정과 가수 이선희·이승기가 소속사의 주주가 됐다. 이들의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3일 “회사가 콘텐츠 제작사 초록뱀미디어와 합치면서 권진영 대표가 본인 지분의 38%인 167억원의 주식을 소속사 연예인과 임직원 전원에게 무상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연예인과 임직원들이 증여받은 구체적인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근 초록뱀미디어는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인수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02년 설립돼 최근까지 매니지먼트 사업을 벌여왔다.

일본 출신 방송인 강남, 한국인 귀화 시험 합격



강남

일본 출신 방송인 강남이 한국인이 된다. 강남은 13일 자신의 SNS에 “귀화 시험 붙었어요. 가자아아아아. 이제 먼집 가자아아아아”라는 글과 함께 관련 사진을 올렸다. 귀화 시험 성적표를 담은 사진을 보면 강남은 필기 52점, 구술 11.5점, 총점 63점으로 합격했다. 그는 “3수 끝에 붙었습니다”는 말도 덧붙여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강남은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하며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와 아내(이상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가 한국인이어서 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휘성, 집행유예 두 달 만에 콘서트 한다고?”



휘성

가수 휘성이 프로포폴 사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단 두 달 만에 콘서트를 열기로 해 비난받고 있다. 휘성은 24일 KBS 부산홀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펼칠 예정이다. 하지만 가요계 안팎에서는 그가 너무 이른 시기에 무대에 복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휘성은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구매, 11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애니메이션 ‘태일이’ 10만 관객 돌파



태일이

1970년대 초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던 청년 전태일의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태일이’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태일이’(감독 홍준표)는 주말이었던 10~12일 5000여 관객을 불러 모으며 누적 10만92명을 기록했다. ‘태일이’는 1970년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한 재단사 전태일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태일이’의 예매율에서 40대가 34.4%, 30대가 24%를 각각 나타내 자녀들과 함께 작품을 관람하는 가족단위 관객이 많음을 보여준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유재석, 확진에 스케줄 전면 취소…출연예능 비상

‘런닝맨’ 등 촬영일정 조정 불가피 ‘놀면 뭐하니?’ 도토리 페스티벌 잠정 취소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49)이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MBC ‘놀면 뭐하니?’, SBS ‘런닝맨’ 등 출연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급히 일정 조정에 나섰다.

이날 소속사 안테나는 “유재석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예정된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재석은 9월 말 2차 예방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PCR(유전자증폭) 검사에 나섰다. 음성 판정을 받고 수동 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뒤 이날 오전 2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됐다.

이에 따라 그가 현재 출연 중인 ‘놀면 뭐하니?’ ‘런닝맨’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제작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카카오톡TV로 공개 중인 ‘더데이TV:우당탕탕 안테나’는 지난날 촬영을 미리 마쳤다.

이날 유재석 없이 촬영한 ‘런닝맨’ 제작진은 “이후 일정은 논의 중”이라면서 “유재석이 촬영 이전에 양성 판정을 받아 다

른 출연자나 제작진과 접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유 퀴즈 온 더 블럭’ 측도 “매주 수요일 녹화해 유재석의 동선과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재석은 18일 SBS ‘연예대상’에도 불참한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MBC센터에서 개최하려던 ‘도토리 페스티벌’을 잠정 취소했다. 유재석 없이 녹화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00년대 SNS 플랫폼 싸이월드의 인기 배경음악을 소재로 한 무대에서 유재석은 방송인 하하, 미주와 함께 혼성그룹 ‘도요태’로 나설 예정이었다.

가수 하하와 미주 등은 흑시 모를 상환에 대비해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전날 유희열이 확진 판정을 받은 안테나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 차원에서 모든 소속 가수들과 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방탄소년단 진 ‘슈퍼참치’ 돌풍이 두려운 일본

일, 가사 ‘동해바다’ 표기에 생트집 V라이브 1억뷰…첼린지도 쏟아져



그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김석진)이 작곡한 ‘슈퍼참치’가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룹의 글로벌 인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서 ‘첼린지’ 열기를 이끄는 가운데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이를 두고 생트집을 잡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슈퍼참치’는 진이 자신의 생일(4일)을 맞아 공식 SNS를 통해 팬클럽 아미를 위해 무료로 공개한 노래다. 지난해 생일에 솔로곡 ‘어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중독성이 강한 ‘B급 감성’ 가사가 눈길을 끈다. ‘딱딱딱 뛰는 가슴/내 물고기는 어디 갔나/동해바다 서해바다/내 물고기는 어딴데/참치면 어떠하리/팽어면 어떠하리/삼치면 어떠하리/상어면 어떠하리/내 낚싯대를 물어주오/그때 마침 참치 내게/형, 형 나 좀 데려가요’라는 내용이다.

진은 최근 V라이브를 통해 “첼린지 낮은 B급 감성의 노래와 안무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움은 내 몫”이라며 “여러분께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공개했다. 재미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래는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슈퍼참치 쇼케이스’라는 제목 그럴듯한 제목의 V라이브 영상과 유튜브 공개 퍼포먼스 영상 조회수가 13일 현재 각각 1억뷰와 2707만뷰를 넘어섰다.

이에 각 SNS에서는 ‘슈퍼참치 첼린지’ (#SuperTunaChallenge)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해외의 한 유튜버로 추정되는 곳에서 어린이들이 춤을 따라하는 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일부 누리꾼은 노랫말 속 ‘동해바다’에 대해 “‘동해’가 아닌 ‘일본해’가 올바른 표기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동해’ 표기가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꼬집었다. 이정연 기자 anjoy@donga.com

내년 1월 윤정희 국내 성년후견인 지정 심문…법원 판단에 주목

윤정희 형제자매-남편 백건우 갈등 딸 백모씨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손미자·77)의 국내 성년후견인 지정을 위한 첫 심문기일이 내년 1월 열린다. 윤정희의 딸이 청구한 사건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은 윤정희의 딸 백모씨가 지난해 10월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사건의 심문기일을 내년 1월18일 연다.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법원의 일정한 심리 절차를 거쳐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 대신 각종 법률행위와 재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프랑스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된 딸 백씨가 국내 법원에도 관련 신청을 낸 사실은 지난해 초 윤정희 형제자매들이 “백건우와 딸이 프랑스에서 윤정희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윤정희가 한국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건우와 딸은 ‘방치’ 주장이 ‘거짓이다’면서 아내가 “주기적인 의사의 왕진 및 치료와 합

계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은 2019년부터 갈등해왔다. 이에 백씨가 프랑스에 이어 국내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형제자매들은 이의를 제기해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해왔다. 법원은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점을 감안,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그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지난해 6월 면접조사를 하는 등 양측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딸과 형제자매는 각자 변호사를 통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이 첫 심문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윤정희

날 윤정희에 대한 성년후견인을 지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첫 심문기일 당일엔 결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하지만 관련 당사자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계속 법적 분쟁을 이어갈 수 없는 특수상황이 있다면 당일엔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동아는 형제자매 측 변호인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백씨 변호인 측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응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